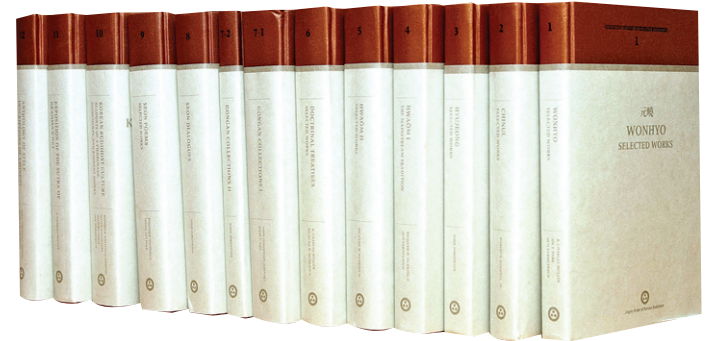


역경 불사 '전통사상총서' 영역 완간

조계종 전통사상서 간행위, 총서 한글본 등 26권 마무리



〈한국전통사상총서〉영역본 13권. 5년간의 대역역경불사가 마무리됐다.

故지관 스님 원력 33대 집행부서 결실
다자간 번역 시스템으로 역장 복원 의의
기초자료 활용...한국불교 세계화 초석

〈전통사상총서 주요 영역자〉



로버트 머셀, 찰스 윌러, 쉘 베르메르슈, 리처드 맥브라이드

2006년 12월 준비 모임을 갖고 시작된 〈한국전통사상총서〉가 최근 영역(英譯)본 출간을 마지막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한 가지 주제의 불교 총서물이 한글·영역까지 완간된 것은 한국 현대불교 역경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위원장 자승)는 사업 마무리 시점인 지난 6월 〈한국전통사상총서〉영역을 완간하고 8월 14일 제28차 간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배송

대상 목록을 확정했다.

前조계종총무원장 故지관 스님이 시작한 〈한국전통사상총서〉간행 사업은 한국 불교문화의 정수인 원효, 의상, 지눌, 휴정 스님 등의 저술을 한글과 영어로 번역해 한국 전통불교사상을 국내외에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고문으로 쓰여진 〈한국불교전서〉를 요약한 만큼 그 양도 방대하다. '권1 원효'로 시작하는 총서는 화엄, 제교학, 공안집(1,2), 선어록, 시

선집, 계율, 비문집 등 총 13권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글과 이번 영역본을 합치면 26권에 달한다.

故지관 스님은 2009년 첫 한글본 불경번역 당시 "연구자 인프라가 취약하고 국고 지원이 갖는 시간적 한계 등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 시작한 불사"라며 "고전 한문의 높은 담안에 갇혀 있는 정법의 유산들을 대중

에게 회향할 수 있게 됐다"고 총서가 가지는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전통사상총서〉의 가장 큰 특징은 '다자간 번역시스템'을 통해 고대 역장(譯場)을 복원했다는 데 있다. 그간 번역은 번역자 1~2인에 의해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이 있어 왔다. 하지만 '다자간 번역시스템'은 한글역자와 영역자 간 교차검토

와 검증은 거처지 때문에 국내의 연구 성과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었다. 번역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면면들도 화려하다. 해주 스님(동국대 교수), 고옥 스님(가산불교연구원 연구실장), 정병삼 교수(숙명여대), 이진오 교수(부산대) 등은 한글번역과 운문·영역 1차 감수를 담당했으며,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정덕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대조 교열을 진행했다.

총 8팀으로 구성된 번역팀에는 로버트 머셀(美 UCLA), 찰스 윌러(日 동경대), 리처드 맥브라이드(美 하와이대), 쉘 베르메르슈(서울대), 안준영(美 미시간대) 등 총 23명의 전문가가 주요 번역·교열자로 참

가했다. 23명의 보조연구원도 번역에 참가해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

간행 작업에 참여한 미산 스님은 "그간 해외에서 한국불교를 연구하려 해도 기초자료가 부족했다"며 "고승 전적과 비문, 선어록을 정리한 이번 총서는 외국 한국불교 연구자들에게 기초 자료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이런 학술적 성과를 통한 이론 정립과 포교가 함께 이뤄져야 한국불교 세계화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앞으로는 근현대 선지식에 대한 영역 논서들도

발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한국전통사상총서〉는 한국 국제교류재단을 통해 세계 각국의 주요대학과 국공립 도서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간행위원회 실무를 담당했던 권기찬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도 "한국불교 학술 총서가 한글과 영어로 번역돼 완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한글역만 전 세계 313개소 도서관의 요청으로 배포됐다. 영역본의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남북통일 정도 함께 이루겠다”

조계사 - 광범사서
8.15 남북 동시 법회

광복 67주년을 맞아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와 북한 조선 불교도연맹은 8월15일 서울 조계사와 평양 광범사에서 각각 '8.15 남북불교도 동시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민주본 본부장 지홍 스님,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사회부장 법광 스님, 민주본 전 집행위원장 진호 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흥파 스님(관음종 종무원장)을 비롯해 중앙선도회 손안식 상임부회장,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남북불교는 발원문을 통해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고 조국통일을 향해 갈 것을 강조했다. 남북은 "지금 남과 북 사이에는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불신과 대결이 더욱더 격화되었으며, 첨예한 대결의 기운이 이 땅을 무겁게 뒤덮고 있다"며 "우리들은 분단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내고 둘이 아닌 하나가 되고자 남북선언 실천을 위해 용맹정진하겠다.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 지상정도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정혜숙 기자



8월 12일 열린 제16회 만해대상 시상식 직후 만난 월주 스님(사진 오른쪽)과 르네 뒤퐁 주교. 평화와 실천 부문의 두 수상자는 만해 흥상을 사이에 두고 두 손을 잡았다.

스님·신부가 맞잡은 두 손은...

제16회 만해대상 수상자 월주 스님·뒤퐁 주교의 만남

만해 스님의 정신을 잇는 공생의 메아리가 강원도를 넘어 전세계에 울려 퍼졌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이사장 오희)는 8월 12일 인제 하늘리센터에서 임재식과 함께 제16회 만해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만해대상 시상식에서는 조금은 특별한 종교인 수상자 2명이 이

름을 올렸다. 지구촌 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과 르네 뒤퐁 주교(천주교 안동교구 前 교구장)가 주인공. 이날 월주 스님은 만해 평화대상을, 뒤퐁 주교는 실천 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월주 스님은 캄보디아 오지마을에 우물 1660개, 케냐에 15개, 몽골에 12개를 설치하고 미얀마에서는

강물 급수시설을 설치하는 등 빈곤국 구호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실천 부문에 이름을 올린 르네 뒤퐁 주교는 60여 년을 안동 지역 농민·소의 이웃과 함께 해 온 숨은 선지식이다. 시상식 이후에는 종교를 넘어선 두 종교인은 손을 맞잡으

며 교우의 자리를 가졌다. 월주 스님은 뒤퐁 주교에게 "83세 평생을 한국을 자신의 나라에서처럼 사랑을 실천해오셨다.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뒤퐁 주교 역시 "나이고, 머리스타일도 비슷해 보인다. 스님이 마치 형제처럼 느껴진다"고 화답했다.

강원 인제=노덕현 기자
관련 기사 3면

BBS 민영미디어랩 '사찰도 반대'

전국 사찰 현수막 게재... "종교편향 정책 철회하라"

MB정부의 종교 편향 미디어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주요 사찰에 게재됐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기독교방송의 광고 판매에 공영미디어랩에 편입시킨데 반해, 불교방송은 SBS의 민영미디어랩이 주도하는 현수막을 달았다. 이들은 지난 8월 7일부터 '불교방송은 상업 방송이고 기독교 방송은 공영 방송이냐' MB 정부는 종교편향 미디어 정책을 철회하라'라는 문구를 게재해 불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이는 충청 호남 대구 강원 지역 등의 사찰로도 계속 확산되고 있다.

불교방송 박관우 보도국장은 "SBS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민간 기업이지만 불교방송은 공공의 가치를 위한 종교 방송이다.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시장에 근거해 불교방송을 SBS와 묶으려고 하는 것은 종교편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불교방송은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 홍성규 부위원장의 사회운동을 추진하는 등 다각도의 움직임을 펼칠 예정이다. 박 국장은 "현재 방송

위 실세라 할 수 있는 홍 부위원장의 사회운동도 조심스럽게 추진중에 있다. 이런 일련의 활동을 통해 8월 24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고시를 대신 이어나갈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불교방송은 >종교방송 3사 사장단 성명서 발표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서 불교방송 공영미디어랩 편입 촉구 결의문 채택 >대불청 불교사회 시민단체 성명서 발표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관련 기사 31면

902호 INDEX

종합	2·3
백양사 '부촉문' 진위 논란 조계종, 노동자 '감싸안기'	
시방세계	5
올림픽 불자 선수들 '마음공부'	
강의실 중계 동국대 국제선센터 수불 스님 특강	8
불교방송은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 홍성규 부위원장의 사회운동을 추진하는 등 다각도의 움직임을 펼칠 예정이다. 박 국장은 "현재 방송	

불교사진공모전

제2회 천태종

한국사진작가협회 접수부여

응모내용

공모주제 불교 관련 소재(미공 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국내·외 미발표작)
참가자격 전국 사진 애호가
접수기간 2012년 6월 1일 ~ 10월 5일(당일 소인 유료)
작품규격 가. ① 슬라이드 필름 : 컬러 및 흑백 사진 11" x 14" (장정불요)
② 디지털카메라 : 최소 3024 x 2016 픽셀(5M가상, JPG파일)
나. 출품수 : 1인당 3점 이내
접수방법 작품 뒷면 또는 이메일에 화제, 성명,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를 기입한 출품표를 부착해 우편 또는 이메일(ggbn@ggbn.co.kr) 접수
주소 : 110-776 서울시 중로구 경운동 89-4 SK허브 오피스텔 102동 307호 (02-723-1548)
심사발표 2012년 10월 초 · 중순 대한불교천태종(www.cheontae.org)과 금강신문(www.ggbn.co.kr) 홈페이지 및 지면

시상내역

금상(1점)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상패 및 상금 300만원(4점 부여)
은상(2점) 상패 및 상금 각 200만원(3점 부여)
동상(3점) 상패 및 상금 각 100만원(2점 부여)
가작(5점) 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이하 2점 부여)
장려상(5점) 출품수가 800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입선 입상작 포함 출품작 수의 20% 이내

수상작 전시

일시 2012년 10월 24일~30일
장소 서울 인사동 덕원갤러리 4·5층(인사동 사거리 위치)

기타 유의 사항

- 금·은·동상 입상자는 심사 발표 후 7일 이내에 작품 원판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름 원판, 디지털 작품은 3024x2016픽셀 이상의 원본파일을 CD로 제출), 미 제출시는 상권을 취소함.
- 디지털 합성 또는 과도한 포토샵으로 작업한 사진은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선 이상의 작품은 대한불교천태종에 저작권이 귀속되고 출판,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출품작의 초상권에 관한 문제는 출품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 기발표작, 유사작 및 동일작을 출품하여 입상·입선될 경우 상권을 취소함.
주최 : 대한불교천태종 | 주관 :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 한국불교사진협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금강신문, (사)한국사진작가협회

* 자세한 내용은 대한불교천태종, 금강신문 홈페이지 참조